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성도의 큰 기쁨 (느12:27-30, 40-47)

## The Great Happiness of the Saints (Neh. 12:27-30, 40-47)

본문에는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2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의 날이 오기까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박노철 목사

### 1.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라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의 성벽 봉헌식을 갖는 장면으로 “감사, 노래, 제금, 비파, 즐거움”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도 큰 기쁨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성 안에만 국한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28-29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 마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도록 하며 성벽을 정결하게 청소를 했습니다(3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2.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을 하라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 및 성전 봉사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즉 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십일조를 거두어 따로 구별해서 성전 공간에 쌓아놓아 성전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과 성전 운영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귀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바치고 드리는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44절).

예수님께서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웨슬레도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자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 3.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45절은 교회를 섬기는 성전 사역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물질과 봉사로서 저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뒤에 겸손히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한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백성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한국교회 원로이신 어느 목사님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중직이 솔선수범을 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중직이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질서 가운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people who transmit joy and happiness appear in this text. The Israelite people were so happy that the sounds of happiness coming from within Jerusalem could reach far away.

The names of many people were enumerated in Nehemiah 11:12. It was not until the joyful day reached them in Jerusalem that they recorded their faithful families. It was truthfully precious blessings to have faithful ancestors to follow after.

### 1. Make the church a community of happiness

In verse 27, at the dedication of the wall of Jerusalem, the words, “thanks giving, songs, cymbals, harps, and joy” were shown. It was festive scene of tremendous happiness. This was not limited to happiness inside Jerusalem. In verse 28-29,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brought together from the region around Jerusalem, who sung, and shared their

happiness.

And then the priests and Levites purified themselves, and they purified the people, the gates and the wall (v. 30).

The church of Jesus Christ Himself must be the place where the happiness that was given by God overflows. If the church that is overflowing in happiness becomes the community, it will revive itself.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only God can give this truthful happiness to us.

### 2. Devote yourself to fill the church's needs

The peopl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priests and the Levites who took care of the offerings, sacrifices and services. Therefore, according to the law regarding the priests and Levites, some people wer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storerooms for the contributions, first fruits, and tithes, putting aside the portion for the priests and Levites, and the bringing of them into the storerooms. All were to be used to sustain all those who served in the sanctuary, and the management of the sanctuary. As they once again began to see the priests as precious, they newly structured their lives toward services and offerings (v. 44).

Jesus said,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And John Wesley said, “The repentance of anyone whose pocket doesn't repent is not remorse in truth.”

### 3. Do your best for duty assigned to you according to the church order

In verse 45, those who served the sanctuary appeared. The people could not help being moved by seeing the appearance of the priests. Accordingly, they did their best and supported them with their needs and in the services. And also here, surprisingly we could find the appearance of Nehemiah. In verse 38, we can see Nehemiah who stood humble behind his people.

Even though Nehemiah was a hero who rebuilt the wall and who gathered the people together, when he went to attend church to worship God, he made the priests and Levites go before him and he followed behind them. He was a humble leader in every way.

A senior pastor in the church of Korea said as follows, “The more a church revives, the greater those who hold an important post take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the less a church revives, the greater those who hold an important post act like a seniority.” He also said, “The more we receive grace, the more humble we are, the more we respond to an order, and the more we are loyally devoted for our assigned duty.”

### My beloved Christians!

Binding our mind to one, and in filling our church's needs to make our church full in happiness, I earnestly hope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devoting yourself in the midst of what is to be done in an order.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0]

(문 18) 크리스천은 아직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답) :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자기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홍수이후의 시대를 위해 기본지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창9:1-16)

그 중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창9:4)는 금령이 있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자를 내 백성에게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했습니다.(레17:10-11)

문제는 이 같은 금령이 신약시대까지도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10:10-15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을 통해 모세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고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한 것은 레11:1-45, 신14:3-21에서 금한 것을 모두 풀어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문제를 위해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행15:19-20)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는 음식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10장에서 베드로에게 계시로 폐지시켰던 것이 야고보에 의해 다시 회복된 것인가? 물론 행10장에서 베드로는 음행을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전10:27-28에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나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했습니다.

그런고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물을 먹지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피의 거룩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55)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물로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약에서 피를 먹지말라 한 것은 그것을 생명자체로 보고 또한 살인하는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것을 이방인들이 먹음으로 마찰이 있게 됨으로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져 초대교회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 공동의회: 9월2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2층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가이오실에서 열린 임시 당회(임시당회장 이수중 목사)에서 우리 교회 당회는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2대 위임목사로 청빙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서울강남노회에 청빙 청원을 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9월 2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번 공동의회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28조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동의회 참가자격은 2011년 9월18일(주일)까지의 등록자로 2011년 9월25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는 9월18일(주)와 25일(주) 모든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25일(주일)에 선거인 명부 대조 및 투표권을 교부한다.(1,2,3부 예배 후) 공동의회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성도들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 후 9월25일(주일) 투표권을 교부받아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한다.

투표를 마친 후 공동의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위임목사 청빙 서명 연서(세례교인)에 서명한 후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번 공동의회에는 이종운 원로목사도 참석한다.

2대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 중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 손현보 목사 초청 특별 금요기도회

## 9월 23일(금), 연합다락방 모임으로

9월 23일(금) 금요기도회는 손현보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세계로 교회만의 전도방법과 간증을 나누고자 한다.

손 목사는 1993년 제적성도 30명 이던 교회를 10년 만에 3천명으로

'100배 성장' 을 이루었으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란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손현보 목사는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리더이며 현재 부산세계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 2011 사랑의 바자

## 9월 한 달 간 사랑나눔 A+운동, 온라인 바자

### 29(목)~30일(금) 2011 사랑의 바자로 소외된 이웃 결으로 성금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사랑의 우물과 기라는 이웃사랑실천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2011 사랑의 바자위원회는 "사랑 나눔 A+" 캠페인을 통해 바자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대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3.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 (사랑의 온도계) : 만원 일정액을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는 운동이다. 지금 나눔의 사랑의 온도계는 1층로비, 2층코람데오 앞, 8층식당 입구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4. 10% 나눔운동 : 청소년들의 핸드폰통

화로, 각종 게임방 출입비용, 어른들의 외식비용, 택시비 등 교통비, 가정 전기료, 차량 유류비, 여름휴가비용 등을 자제, 절약하여 기부하는 운동이다.

\* 사랑나눔 A+ 1%나눔운동, 10%절제운동 참여 신청자 명단

1%: 안희희, 이우식, 최학인, 최광성, 김시환, 주동재  
10%: 안혜민, 김장섭, 최규초, 오치열

1. **웃장비우기** : 웃장을 비우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더 이상 입지 않아 웃장에 방치된 헌 옷을 3점 이상 기증하자는 운동이다. 기증된 의류는 바자 기간 중 재활용 의류로 판매한다.

2. **1% 나눔운동** : 유, 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교인 및 외부 기업, 업소에서 8월 수입 중 일부를 약정하여 기부하자는 취지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주일예배 시 본당 2, 3층 좌석을 채운 후 4층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나의 하나님

# 생명의 우물

## 이재uel 선교사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님과 성도님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2교구와 15교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세분의 장로님들이 도착하는 9월 13일 오전 굴착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우리는 먼저 우물위치를 정한 뒤 성도들과 작업자들이 모여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기도한 후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14일 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 프놈펜에서 120여km를 교회에 차량으로 2시간 30분여 걸려서 도착하였습니다. 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들과 이웃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 총 170(여른 70여명, 어린이 100여명)여명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주일예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예배처소를 제공한 집 주인 Loek Sokhom 성도가 많은 은혜를 받아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기공식에서는 주민들이 물을 실어갈 수 있도록 물수레 5대를 마련하여 기증하고 생명의 우물 제1호 명패를 교회 사역자(Eng Narin)에게 전달한 후 신용식 선교위원장님의 기도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캄보디아는 큰 도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빗물이나 웅덩이에 고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 놓고 사용하기 위해 집집마다 시멘트로 만든 큰 물통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우기 때 받아 놓은 빗물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이 지나면 그 물에 벌레도 생기고 이물질이 들어가는데도 그물을 먹고 마시며 건기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끗한 물을 언제든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을에 우물이 생기는 것이 꿈만 같은 일입니다

힘차게 물을 찾기 위해 파고 있는 장비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생명의 우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성령)를 받아 마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착박한 이 땅 캄보디아에 제3호, 제4호 생명의 우물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날(9월15일) 오후 사역지역을 답사하는 중간에 우물작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45m를 팠는데, 이는 새까만 암석층에서 3m를 더 판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량의 물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가서 수질과 물의 양 등 제반 사항을 확인 한 후 다음주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이 지역 일대 2개의 군부대와 3개 마을 주민 150여 가정들이 생명의 우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물을 길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들 안에서 넘쳐 나와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끊임 없이 흘러 흘러가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먼지

잠시 멈춰진 벽  
육체는 먼지라고  
생을 흥정하려  
뜨겁게 치미는 목마름인가  
큰 환자복에 까부러지는 몸  
제 안에 고여드는 한 모금 숨 소리  
몸의 갈피마다 죽음같은 먼지가 일고

윤조리는 영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먼지에 감겨진 긴 붕대, 긴 눈물  
묶어주며 풀어주는  
당신의 긍휼한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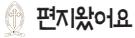
우리는 단지 먼지일뿐

머리 한 올  
손톱 한 끝  
눈물 한 방울  
당신의 사랑 무량 하여라

신동기 권사(12교구)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 러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 박노철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러시아기 도팀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범진공사 순국비를 찾아

## 1. 노브고로드 한국문화센터 사역

노브고로드한글학교를 총영사관에 정식 등록하여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매개체로 하여 전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수업은 한주에 두 번하는데 한번은 한국어 교재로 하고 한번은 성경책(한글성경과 러시아어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브고로드한글학교에 나오는 한국동포(고려인)들은 앞으로 거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 노브고로드장로 교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 2. 노브고로드국립대학 한국어 교수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노브고로드국립대학에서 한국어강사 비자를 받게 되어 합법적으로 노브고로드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국어강사로 일하는 것은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고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 노브고로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을 응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그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길을 열어 주려고 한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일환이며 한국에 유학하게 되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도록 할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것이고 개신교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관계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가교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노브고로드 지역은 특히 정교회의 영향이 강하고 아직도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더욱 기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1월초에 침례교 아나톨리 이바노비치 목사님의 아들인 블라드형제가 교회앞 30m지점에서 복면을 한 괴한에게 테러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문제는 TV뉴스에 이 사건이 방송되었는데 교회와 사건장소를 비추면서 '이단종파의 목사의 아들'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나톨리목사님은 개신교목사회에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인데 2월에는 우리 개신교목사회에 나와서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각 교회에 당부하였습니다.

2)지마전도사와 세르게이전도사는 9월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장로회신학교(학장:최영모선교사)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명이 꼭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 노브고로드장로교회를 맡아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OHANA영어프로그램은 결핵병원에 속한 슈폴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결핵병원에 있는 슈폴라 학생들은 치유가 된 후 노브고로드주의 각 고

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 건강한 몸으로 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벨리기 노브고로드에서  
김영호 서향정(예나, 예림, 민혁) 선교사 드림

## 9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1독: (5교구/청년부) 박은영 성도,  
(8교구) 김영일 집사 박정옥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2교구) 정민모 집사 최근자 권사

## 이종윤 원로목사 극동방송 대담 프로그램 방송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가 지난 9월15일 가진 극동방송-특별한 만남 febc초대석 대담이 극동방송 인터넷방송(<http://febc.febc.net>)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성도들의 많은 시청 바란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아멘 관현악단(부장:정인주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군군악학교 심포니밴드 지휘자이며 아멘 관현악단 지휘자인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주의 영광은 (R.Kingsmore 편곡)", "눈을 들어 하늘 보라(D.Smith 편곡)",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D.Smith 편곡)" 등 네곡을 연주한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0일(화) C channel방송 직원예배에서 설교한다. 23일(금)ROTC기독교장교연합회 수련회에서 특강한다. 24일(토)장로교신학회 올해의 신학자상 수여 모임과 장로교신학회 심포지움에서 설교 한다.

■ 수상: 12교구 신동기 권사 미주 서복미 문인협회 시부문 뿌리문학 신인상

■ 득남: 3교구 윤동식 성도 김현정 성도

■ 주간식당봉사: 제2스데반회(9.18) 제1권사회(9.25)

■ 금주의 식사: 임흥수집사, 하옥봉 권사 가정 (생일을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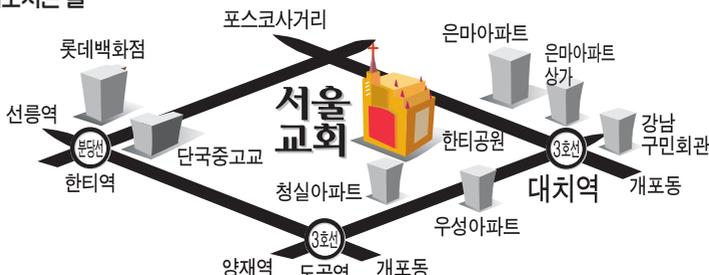
- 9월 25일 주일찬양예배 후에 있는 공동의회와 위임투표에 모든 등록교인들이 참여하여 교회가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 9월 29일(목)과 30일(금)에 열리는 사랑의 바자가 모든 교구일꾼들의 헌신으로 잘 준비되어 빈약한 자 구제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예배 안내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 3. 교회사역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